

우리의 많은 약속



'6·13지방선거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는

소속 단체 회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수합하고 분류해서 10대 분야에서 33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들은 공공성, 공익성, 여성주의, 친환경·생태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선정됐다.

6·13지방선거 목포시장 후보 정책 실천 서약식



6.13지방선거 목포시민사회 네트워크 제안 정책



01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목표

- 1-1.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한 목포시 인권조례 개정
- 1-2. 인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1-3. 옛 유곽을 여성 인권 공간으로 구성

02 시민 모두가 안전한 목표

- 2-1. 재난대응책 마련
- 2-2. 방사능관련 먹거리 대책 강화
- 2-3. GMO(유전자 변형식품)없는 학교급식 시행
- 2-4. 미세먼지대책 수립
- 2-5. 공원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03 에너지를 중시하는 목표

- 3-1. 지역에너지 전환·자립정책 수립
- 3-2.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재정비

04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해 재생되는 목표

- 4-1. 지속가능한 목표발전을 위한 목포도시재단 설립
- 4-2. 도시재생 시민위원회 구성
- 4-3. 원도심 성매매 지역 재정비

05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목표

- 5-1. 대중국 정기항로 개설
- 5-2. 지역 민간 및 소상공인 플라마켓 지원

06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

- 6-1. 청년정책지원과 신설
- 6-2. 청년문화공간 조성

07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목표

- 7-1.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유네스코인증
- 7-2. 진로교육과 섬이 있는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 7-3.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설치
- 7-4. 원도심 교육특구 선포 및 운영

08 여성이 살만한 목표

- 8-1. 여성친화경제환경 조성(돌봄의 사회화)
- 8-2. 여성대표성 제고
- 8-3. 성평등 정책과 행정 시행
- 8-4. 여성(아동 포함)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8-5. 여성을 위한 공간 조성

09 세심한 복지가 있는 목표

- 9-1. 목포시 공공호스피스병동 운영
- 9-2. 장애인 안전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 9-3. 목포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0 시민이 주인이 되는 목표

- 10-1. 시청홈페이지에 '시민토달문의코너' 운영
- 10-2. 시민이 전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10-3. 시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세 개혁
- 10-4. 미래를 위한 목포만민공동회 운영

11 기타 현안

- 1. 목포 해상케이블카 건설
- 2. 목포대양산단 운영
- 3. 임성지구 도시개발 계획
- 4. 목포시항 세월호 거취

전남환경운동연합과 민주진보교육감 장석웅 후보 정책 협약

지속가능한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 협약서

장석웅 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전남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지속가능한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에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장석웅 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와 전남환경운동연합 간에 공동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한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 내용)

1. 기후변화, 자연생태체험, 탈핵 에너지전환 등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2. 사회환경교육과 협력하여 전남환경교육센터를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3. 담장 없는 학교 숲과 학교 텃밭을 확대 조성하여 학교를 생태적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4. 동물 생체실험을 금지하고, 동물보호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5.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할 것이다.
6.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다.
7. 방사능 오염, 식품첨가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할 것이다.
8.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을 확대하고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9.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에너지절약형, 에너지 자립형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10.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다.

제3조 (협약의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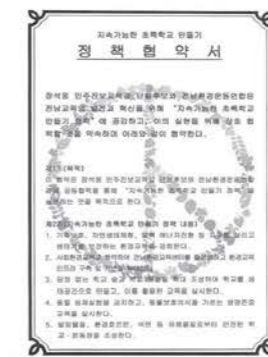
1. 장석웅 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협약의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5월 9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장석웅

전남환경운동연합 의장 최송춘





생강도 살고, 두더지도 살아야지

글 / 정 고 운 (신입회원)

전북 부안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 큰오빠네 생강밭 일을 도우러 갔었다. 초록생강잎 너울거림은 간데없고 듬성듬성 뱃집 구멍들이 보여 물으니 발아가 안된 곳이라며 두더지굴이란다. 귀한 주말 땀벌에서 생강 쪼개고 말려 종강 만들고는 허리도 못 펴고, 모양빠지게 몸뻐 바지에 엉덩이 의자 차고 심은 생강인데, 두더지가 먹었다니!!

씩씩거리는 내게 오빠는 농사는 나누며 함께 사는 것이라 했다. 다 하늘의 뜻이라고, 속상할 것 없다고, 자연이 허락한만큼 거두며 주는 그대로 받으며 살겠다 하였다.

도시의 소비자인 나는 내가 소비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

산되는지 모른다. 하여 물질의 가치도, 자연의 순리도 모른다. 그저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었다.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산자 오빠의 생활이 답답하고 촌스러웠다.

1년 뒤, 엄마가 되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은 온통 위험투성이었다. 아니 재앙 수준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건 일상이 되었고, 화학물질 범벅인 위생제품이 종일 피부와 닿아 있고, 식품첨가물과 농약, 방사능에 얼룩진 GMO 먹거리들은 환경호르몬을 가득 담아 식탁에 놓였다. 내 아이가 뛰어들어 놀이터는 우레탄이 덮여있는데 그마저도 패이고 찢겨있다.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고 사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안전하게 키울 수 없는 나와 우리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 함을 깨달았다.

개인의 촛불이 거리를 메우고 한 목소리로 외쳐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혔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가능하다. 작은 행동에 그치던 나의 반경을 넓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시작으로 나는 목포환경운동연합에 가입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주부이자 엄마로서 농부인 오빠가 씨를 뿌리는 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다.

유년 시절의 내가 은근동 다순구미 뒷골목에서 목포바다를 병풍삼아 슬래잡기하고, 대반동 해수욕장에서 물놀이와 모래놀이로 하루가 저무는 줄 몰랐던 그 찬란했던 시간들을 내 딸에게도 선물하고 싶다.



기 다 립 니 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수필, 시, 사설, 축하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새 병들 속에 숨어 있는 옛 병을 찾아라

글 / 김 창 훈 (뫼난이박물관장/신입회원)

매의 눈으로 빈 병들이 담겨있는 박스를 쳐다본다. 병 모양은 모두 같지만 붙어 있는 라벨에 따라 빈 병 값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 높은 병 속에 값싼 옛날 병이 섞여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새 병 속에 섞여있는 옛 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 흔하지 않은 일이라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일은 잠시 접어두고 짧은 기간 동안 조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2017년 1월부터 빈 병의 몸값이 올랐다. 같은 병이지만 어떤 뫼(라벨)를 입었느냐에 따라 그 몸값이 두 배 이상 차이

가 난다. 역시 사람이나 빈 병이나 뫼가 날개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본다.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빈병의 반환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재사용이 증가되어 결국 제조원과 절감액 에너지 사용의 절약, 더 나아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니 빈 병 보증금 인상은 잘 된 결정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소주병 15개 정도만 모으면 소주 한 병을 더 마실 수 있다니 나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얼마나 이득인가. 예전엔 40여병 모아야 한 병 더 마실 수 있었다. 술도 더 마실 수 있고 환경도 살리니 그야말로 빈 병 보증금 인상은 좋은 정책이라 하겠다.

많은 수의 빈 병들을 조사하다 보니 그 모습들이 비슷하면서도 각양각색이다. 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병, 각종 오물이 들어있는 병, 깨끗하게 비워진 병, 깨진 병, 낱알이 낀 병, 더러운 병 등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하듯 각 병도 저마다의 삶이 다양하게 새겨져 있다. 힘든 삶을 위로 하는 한 병, 기쁜 삶을 더 기쁘게 하는 한 병, 친구와 더 가까워지는 한 병, 연인의 뜨거운 입김을 이끌어 내는 한 병... 이렇게 모인 수많은 빈 병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빈 병으로 남았으리라. 그런데 술을 남기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나? 술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 놓는데 그걸 남긴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또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비어버린 허전한 마음의 빈 병에 담배꽂초 및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은 자기를 위해 송고하게 희생한 술병에 대한 모독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날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고 희생한 빈 병을 깨끗한 상태로 지켜줘야 한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허전한 빈 병의 마음을 더 이상 허전해 하지 말라고 병뚜껑으로 꼭 닫아주자. 그리하면 다시 술이 담길 때 까지 빈 병의 마음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고 더불어 나쁜 이물질도 그 안을 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얼마나 간단한 술병 사랑인가. 더 나아가 환경 사랑이며, 지구 사랑이고, 후대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위대한 행동이다. 단지 술을 다 마신 후 뚜껑만 덮으면 된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 대단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배려와 노력으로도 대단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많다. 술을 다 마신 후 병뚜껑을 덮어서 버리는 간단한 일이 나비효과가 되어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빈 병들의 몸값조사를 하다가 삶의 진리를 또 하나 깨닫고 간다. 밤이 깊었다. 빈 병 모아 소주 한 병 마시고 싶다.



4월

- 03일(화) 세월호 대표자 회의 / 자원순환 연대교육
- 04일(수) 4·3항쟁 70주년 추모식
- 07일(토) 청소년환경서포터즈 2차 모임
- 09일(월) 세월호 참사 4년 추모전 /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 10일(화) 인권포럼 강연회
- 11일(수) 환경교육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계획 및 진행상황 점검
- 12일(목) 녹색연구회 월례회의 / 목포시교육청 주말학교 운영 담당자 협의회
- 13일(금) 광주전남사무처회의 /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
- 16일(월) 5.6월 기념사업 시민단체 연석회의 /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회의
- 18일(수) 세월호 집행위원회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문화영향 평가' 그룹 인터뷰
목포 근대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 활용방안 토론
- 19일(목) 제205차 집행위원회 / 목포교육지원청 주말학교 협약 체결
- 21일(토) 봄맞이 유달산 둘레길 탐방
- 23일(월)~27일(금) 전국신입활동가 교육수련회
- 24일(화) LMO유채 조사 / 제42회 목요대화마당(여행자의 시선으로 본 목포의 가치와 섬)
- 25일(수)~26일(목) 자원순환 조사
- 27일(금) LMO유채 조사
- 30일(월)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회의

5월

- 03일(목) LMO유채 조사
- 08일(화)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회의 / 6.15공동선언실천 목포지부 집행위
- 08일(화)~12일(토) 영산강 유역 및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 09일(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정책 협약식
- 10일(목)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기자회견/제206차 집행위원회
- 12일(토) 향도여중 환경동아리 1차 교육
- 14일(월)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회의
- 15일(화) 세월호 집행위원회
- 17일(목) 전남환경운동연합 미디어 교육
- 18일(금) 5.18 38주년 기념
- 19일(토) 향도여중 환경동아리 2차 교육 / 518사적지와 근대문화유적지 탐방 도심 걷기
- 22일(화) 세월호 지킴이
- 24일(목) 한빛원전 감사청구 기자회견 / 세월호 대표자 회의
- 25일(금)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강연회
- 26일(토) 바다의 날 기념 회원과 함께하는 바다사랑캠페인
- 28일(월) 6.15공동선언실천 목포지부 기자회견 /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회의
- 30일(수) 목포시장 후보 6·13지방선거 목포시민네트워크 제안 정책 실천 서약식
- 31일(금) 해안쓰레기모니터링(진도 하조도 / 해남 목동리)

• 봄맞이 유달산 둘레길 탐방1



• 봄맞이 유달산 둘레길 탐방2



• 4·3항쟁 70주년 추모식1



• 향도여중 환경교육



•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정책 협약식



• 도시공원일몰제 강연회



• 4·3항쟁 70주년 추모식2



• 전국신입활동가 교육수련회1



• 전국신입활동가 교육수련회2



• 518사적지와 근대문화유적지 탐방 도심 걷기



• 한빛원전 감사청구 기자회견



• 바다사랑 캠페인



[회계보고] 4월

(유)사람과사람/(주)세일산업/(주)현성건설/우진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잠미선)/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영근/강순택/강영규/강제석/강창원/강철수/강혜선/강해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권민준/권지현/국순천/김경미/김경완/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준/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선아/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수자/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연호/김영남/김영미/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호/김영현/김옥/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웅기/김윤임/김은미/김인수/김재영/김정민/김종국/김지숙/김지연/김진영/김창식/김탁/김태웅/김현근/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노애란/류미현/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성/박기훈/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병구/박성원/박성현/박성휘/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윤길/박은숙/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최균/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박현진/박혜숙/박화진/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수정/백재봉/서병권/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상훈/손철주/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현주/양효식/염미순/염승주/오경섭/오숙향/오영출/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국휴/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승용/이승환/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중훈/이준화/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주/이현진/이형광/임경숙/임성진/임진옥/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재연/장진실/전경란/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울/정귀정/정금규/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희/정일승/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광필/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원기/조혜향/진선우/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비호/최선/최송준/최승희/최영섭/최영운/최완수/최웅/최은기/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지우/최철/최태욱/최화녕/최희철/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홍광복/홍선기/홍성혁/황혜미

목포환경운동연합 4월 결산보고 (4월 1일 ~ 30일)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회비	개인회비	3,530,000	교육사업	851,000
	단체회비	290,000	조사연구	
소계	3,820,000	사업비	홍보비	
행사 수입			행사비	
후원금	200,000		연대사업	294,790
중앙 지원금	1,000,000	소계	1,145,790	
기타 수익	260,000	회의비	총회비	
이자 수익			위원회비	24,000
		소계	24,000	
		관리비	인건비	3,270,000
			복리후생비	548,730
			퇴직적립금	272,500
		소계	4,091,230	
		업무추진비	출장비	129,400
			활동비	150,000
		소계	279,400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26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수선비	
			도서인쇄비	238,000
			통신광열비	368,380
			소모품비	148,562
		소계	754,942	
		환경 기금	100,000	
		제세 공과금	65,860	
		지급 수수료	143,140	
전월 이월금	3,768,112	당월 지출금	6,604,362	
당월 수입금	5,290,000	차기 이월금	2,453,750	
합계	9,058,112	합계	9,058,112	

[회계보고]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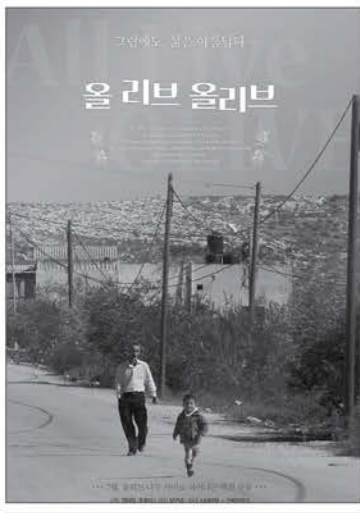
(유)사람과사람/(주)세일산업/(주)현성건설/신우메디컬센터(김일섭)/우진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잠미선)/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영근/강순택/강영규/강제석/강창원/강철수/강혜선/강해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신영/곽재구/국순천/김경미/김경완/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준/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선아/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수자/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연호/김영남/김영미/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호/김영현/김옥/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웅기/김윤임/김은미/김인수/김재영/김정민/김종국/김지연/김진영/김창식/김탁/김태웅/김현근/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노애란/류미현/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민경택/박갑수/박경양/박기성/박기훈/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병구/박성원/박성현/박성휘/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윤길/박은숙/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최균/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박현진/박혜숙/박화진/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수정/백재봉/서병권/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상훈/손철주/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현주/양효식/염미순/염승주/오경섭/오숙향/오영출/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국휴/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승용/이승환/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중훈/이준화/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주/이현진/이형광/임경숙/임성진/임진옥/임혁/장관호/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재연/장진실/전경란/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울/정귀정/정금규/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희/정일승/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광필/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원기/조혜향/진선우/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비호/최선/최송준/최승희/최영섭/최영운/최완수/최웅/최은기/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지우/최철/최태욱/최화녕/최희철/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홍광복/홍선기/홍성혁/황혜미

목포환경운동연합 5월 결산보고 (5월 1일 ~ 31일)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회비	개인회비	4,455,000	교육사업	54,000
	단체회비	290,000	조사연구	
소계	4,745,000	사업비	홍보비	118,800
행사수입			행사비	
후원금	200,000		연대사업	210,070
소계		소계	382,000	
환경기금		회의비	총회비	
기타수익	130,000		위원회비	15,000
이자수익		소계	15,000	
		관리비	인건비	3,270,000
			복리후생비	535,610
			퇴직적립금	272,500
		소계	4,078,110	
		업무추진비	출장비	212,200
			활동비	150,000
		소계	362,200	
기타수익: 일자리안정자금 13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수선비	15,00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204,370
			소모품비	20,000
		소계	257,370	
		환경 기금	100,000	
		제세 공과금	15,310	
		지급 수수료	87,160	
전월 이월금	2,453,750	당월 지출금	5,298,020	
당월 수입금	5,075,000	차기 이월금	2,230,730	
합계	7,528,750	합계	7,528,750	

올 리브 올리브(All Live, Olive)

• 다큐멘터리 한국 2017.07.13 개봉 92분, 전체관람가, (감독) 김태일, 주로미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이 곳에 있어요”

지도 위에서 사라진 땅 팔레스타인에서 살고 있는 위즈단 가족의 일상은 고단하기 그지없다. 올리브 농사를 지으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마텔, 움팔 부부, 세 명의 아들을 모두 잃고 난민촌에서 7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무함마드 할아버지, 작은 평화를 위한 저항으로 친구들을 모두 잃은 청년 알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땅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지도위에서 사라졌다. 69년간의 점령 하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분리장벽만큼 고립되어 있고 조각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화된 점령 속에서도 삶을 끈질기게 이어가는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평화의 물음을 던지고 싶었다. 여러 종교가 공존해왔고 그러면서도 평화롭게 살아왔던 사람들. 일상적인 감시와 폭력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일상을 통해 현재의 팔레스타인을 담고자 했다.

작품해설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올리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자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나무이며, 팔레스타인의 역사다. 그러나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의 올리브 농장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 위즈단 가족이 수십 년간 농사지어온 땅은 한순간에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정해버린 자신의 올리브농장을 돌보기 위해 이스라엘이 허가한 통행증을 어렵게 구해야 한다. 심지어 인티파다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조차 할 수 없다. 자신의 삶의 공간이었던 곳에서 이들은 '난민'이 되어 일상을 살아낸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부터 폭격과 봉쇄, 그리고 점령을 당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있다. 누군가는 도로 봉쇄 철폐를 요구하는 평화 행진으로, 누군가는 팔레스타인의 상징과도 같은 올리브 나무를 심는 것으로,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항의 삶을 살아간다. 이들의 저항에 담긴 소망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터전과 오랜 일상을 되찾는 것이다.

• 추천인 : 정성우 회원(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 총괄디렉터)

영화 <올 리브 올리브(All Live, Olive)>는 6월부터 목포독립영화관시네마라운지MM에서 만날 수 있다.

• 목포독립영화관시네마라운지MM

전남 최초의 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은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들을 상시적으로 관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목포에서 미디어영상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마련한 공간으로, 차·맥주와 함께 독립영화를 즐길 수 있다.

☎ 목포시 영산로 59번길 11(무안동)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한다. 지난 2002년 도입됐다가 소비자의 불편함과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6년만에 폐지되었던 제도를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일회용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다시 한다.

이를 통해 2015년 61억개에 달했던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2022년까지 40억 개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8%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2020년까지 모든 생수, 음료수용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개최시 제정. 그해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인간환경선언이 발표됐고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그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한 나라를 정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공해 퇴치(The Beat Plastic Pollution)'다. 1855년 알렉산더 파크스에 의해 개발된 플라스틱은 그리스어 'plastikos(성형하기 알맞다)'에서 파생됐다. 다른 재질에 비해 성형이 쉽고 가벼운 특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가 '속도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소비량이 늘었다. 그러나 사용 이후 폐기의 단점으로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 덩어리로 전락했다. 편리함에만 치중된 기술 발전이 조금씩 지구를 병들게 했고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안일한 생각이 더했다. 우리가 지극껏 환경을 돌보지 않은 데 대한 책임 결국 우리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환경 살리기가 한참이다. 이번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는 환경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후세대들에게 오염된 환경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6월 17일,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사막화는 기후변화와 인간활동 등으로 인하여 건조·반건조 지역이나 건조한 저습(低濕)지역의 토양이 침식되거나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사막 환경이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국제사회는 1970년대 초반부터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들의 발제로 사막화 대책이 국제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6월 17일

에 프랑스 파리(Paris)에서 기상이변과 산림황폐 등으로 심각한 한발이나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막화방지협약(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을 채택하였다.

1994년 제49차 국제연합총회에서는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7일을 사막화방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중국 고비사막 및 타클라마칸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 북한의 산림황폐화 등으로 사막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협력이 증진되고 우리나라 산림녹화 및 사방기술을 피해국에 지원하고 있다.

6월 24일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21주년 기념일입니다.

1997년 6월 24일 다도해가 그림같이 펼쳐진 향도 목포에서 이 지역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 지역 환경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목포녹색연구회, 영산호보전회, 삼학도보전회, 유달산보전회, 신안환경보전회 등이 하나가 되어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운동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으로의 발전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목포지역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그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지난 1983년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된 영산강지킴이 범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삼학도, 유달산 보전 운동을 거쳐, 88년 목포 녹색연구회 창립에 이르면서 한 차원 발전된 이 지역 환경운동은 이후 92년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회의, 96년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설립에 이르기 까지 한시도 쉬지않는 노력과 전진의 나날이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 지역민의 삶 속에 건전한 생활양식이 뿌리내려 변화를 가져오는 운동, 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 환경관련법규의 환경친화적인 개선 운동,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운동의 참된 모습이다.

오늘 이땅의 환경운동은 모든 인류가 더불어 건강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시대 지고의 가치이며 미래지향의 운동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민의 생명이요 미래인 이 지역의 물과 땅, 바다를 맑고 푸르게 지켜나갈 환경의 파수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다함께 쾌적한 환경,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자. [창립선언문에서 발췌]

회원 소식

4~5월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 박종선 추천 : 박재홍 ● 박성원 추천 : 이내홍 ● 이현승 추천 : 김창훈, 김재혁
- 조상현 추천 : 백재봉, 신현인, 정권울, 제갈경희 ● 양승희 추천 : 정고운, 강혜선
- 박갑수 추천 : 신경희, 최명숙, 한철준 ● 조원기 추천 : 강승우, 조미정, 정효준
- 최송춘 추천 : 김귀영, 김시연, 조동기, 최예화, 김용진, 김용임, 강순택, 조완오
- 재가입 회원 : (유서남환경(상호변경))



|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 신청서

■ 이름

■ 휴대전화 (□수신)

■ 주소 (□집 □직장/ □우편물수령)

■ 이메일 (□수신)

후원회원 신청서

■ 은행명

■ 계좌번호 (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는 출금이 안됩니다)

■ 후원액 □15,000원 □20,000원 □30,000원 □직접입력()

■ 예금주 이름

■ 예금주 생년월일

■ 출금일 □10일 □20일 □28일

-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동의 안함
- 주민번호 _____
-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 2-1)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CMS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 안함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이용 목적
휴먼소프트웨어	후원정보 및 후원금 결제정보	후원자관리 및 후원금 결제정보관리/문자 및 이메일 발송
금융결제원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은행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전화번호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보